

북한의 대미 인식

김영수(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 서론

북한 문헌을 보면 ‘철천지원수’, ‘주적’이란 수식어를 동반한 ‘미제’란 표현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은 언제부터 미국을 이처럼 감정에 사무친 부정적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일까? ‘조국해방전쟁’을 치른 당사자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미국을 적대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미국과 관계개선을 하려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이런 문제의식을 전제로 이 글에서는 북한의 대미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인식’(perception)이란 현상과 문제를 보는 시각이며 ‘관’(觀)이란 점에서, 북한의 ‘대미 인식’은 글자 그대로 미국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북한의 태도와 정향(定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의 대미 인

* 이 글의 구성과 논리 전개를 다듬는 데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날카롭고 매서운 심사평으로 인해 이 논문의 한계를 ‘인지’하면서, ‘인식’을 다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식 체계를 살펴보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거나 변경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북한은 현재 그들이 처한 모든 곤경과 시련도 미국이 제공하고 있고, 그렇게도 바라는 통일도 미국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미국은 북한의 '제일의 주적'이며 타도의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적대적인 대미 인식의 강도는 강하며, 각인되어 온 역사 또한 길며 깊다.

북한의 논리에 따르면, 우리 민족은 1945년 8월에 해방되었으나, '남반부'는 일제를 대신해 미국 제국주의자들이 다시 강점했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기 위해선 '남반부'에서 '미제'를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미제'가 나가서 '남반부'가 자유롭게 되어야만 '남반부'의 인민정부와 북한의 인민정부는 서로 평화적 협의를 통해 민족통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현재 북한이 처하고 있는 시련과 고난의 행군도 모두 '미제국주의자들'이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못 살게 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북한의 인식 체계 속에서 당면 문제의 최대 걸림돌이며, 제일의 장애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대미 인식 체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70년대 초반부터 대미 접근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다. 특히 북한 체제의 생존 문제가 현안이 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더욱더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 이유로 '철천지원쑈'인 미국과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지, 체제 내의 대미 적대감을 완화시키지 않고 북미 관계 개선을 시도해도 체제 유지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 관계 개선에 대한 체제 내의 정당화 논리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북한 사회 구성원인 인민들은 북한

당국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 나름대로 또 다른 대미 인식의 의식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인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우선 ‘적대적 대미 인식’이라고 통상 단 순하게 평가해 오던 북한의 대미 인식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에 비중을 두면서 북한의 대미 인식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다음 체제 유지 차원에서 적대적인 대미 인식을 어떻게 유지·강화시키고 있는지, 체제 유지를 위한 대내적 측면과는 달리 외교 분야에서는 대미 인식이 어떻게 정책으로 전개·구사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북한 인민들의 대미 인식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탈북자들을 통해 검토해 본 다음, 향후 북한의 대미 인식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2. 대미 인식의 내용과 특성

1) 대미 인식의 기초

“미제국주의는 현대의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침략자, 약탈자이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 인민들의 첫째가는 공동의 원수입니다.”¹⁾

“19세기 40년대부터 조선 침략을 꿈꾸어 온 미국놈들은 1866년에 해적선 「샤만호」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침략의 첫걸음을 들여놓았다. 이때로부터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 인민의 흉악한 침략자로 등장하였다. 미제는 1950년에 조선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며 100여 년 동안이나 우리

1)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413쪽. 이하 북한 원문은 북한식 맞춤법에 의해 표기함.

나라를 침략하여 온 조선 인민의 철천의 원수이다.”²⁾

“미제국주의는 이미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미제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 대렬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하고야 말 것입니다.”³⁾

이상의 인용은 북한의 『정치사전』(1973년판)에 실린 ‘미제국주의’ 항목에서 발췌한 것인데, 북한이 미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읽을 수 있는 구절들이다. 여기서 ‘침략자’, ‘략탈자’, ‘철천의 원수’인 미국이 조선과 어떤 악연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런 미국에 대해 ‘미제의 각을 뜯 데 대한 전략’이란 항목에서는 “투쟁하는 나라 인민들은 미제의 팔도 뜯어내고 다리도 뜯어내며 머리를 잘라 버려야 합니다. 비록 적은 힘이라고 하더라도 세계 혁명적 인민들이 이렇게 모두 함께 달려붙어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미제의 각을 이르는 곳마다에서 뜨게 되면 미제는 결국 멸망하고야 말 것입니다”라는 투쟁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내놓으신 전략”으로 “미제의 세계전략을 가장 성과적으로 짓부시게 하는 진공적인 투쟁 전략”이며, “위대한 주체사상과 철저한 반제혁명사상의 구현을 위한 정당한 혁명적 전략”이라고 규정짓고 있는데, 모든 문장이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에 근거한 것임을 명시함으로써 표현의 절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대미 인식은 북한 사회에서 ‘신천 대만행’으로 불리우고 있는 ‘신천 대화살 사건’ 항목에서 보다 구체화되면서 적대적인 대미 인식의

2) 위의 책, 413쪽.

3) 위의 책, 414~415쪽.

절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 후퇴 시기 황해남도 신천군에 기여든 미제송냥이놈들이 우리 인민에게 감행한 대학살 만행 사건으로 인해, 50여 일 동안 군내 전체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000여 명을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하였다. 놈들은 어린이들, 로인들, 부녀자들을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가장 야만적이고 포악한 방법을 다 써서 학살하였다. 미제는 애국적 인민들을 구덩이에 몰아넣고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질렀으며 항거하여 나오는 사람들은 총창으로 찢러 죽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생매장하여 죽이었다. 또한 놈들은 서원저수지 수문에 1,600여 명의 부녀자들을 몇 사람씩 묶고 거기에 무거운 돌을 달아 빠뜨려 죽였으며 살아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총탄을 퍼부어 죽이었다. 이밖에도 미제 야수들은 애국적 인민들을 땅크로 깔아 죽이고 장작불에 태워 죽였으며 사지를 찢어 죽이고 입산부의 배를 갈라 죽이고 젓가슴을 도려내고 심장을 빼내어 죽이는 등 온갖 잔인하고 포악한 야수적 만행을 거리낌없이 저질렀다. 그러나 미제송냥이놈들은 그 어떠한 야수적 만행으로써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위에 굳게 뭉쳐 원썩격멸에 일떠선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 투지를 꺾지 못하였다.”

이처럼 북한 당국의 공식 간행물인 『정치사전』의 표현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적나라한 장면들이 상세한 수치가 동원되면서 이른바 ‘미제 송냥이놈들’의 만행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북한 교과서를 비롯한 대중 매체에서 반복되면서 북한 인민들의 의식 속에 깊숙이 각인되고 있으며, 학교 교육 과정에서 황해남도 신천군을 방문하여 그 실상을 되새기는 행군을 의무화함으로써 ‘신천 대만행’은 북한 인민들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확실한 ‘력사’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북한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주적 미제’라는 인식은 북한 인민들 모두가 염원하는 ‘통일’과 관련하여 더욱더 ‘나쁜 대상’으로 각인되고 있으며, 그 결과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대남 정책 실행에 있어

만드시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⁴⁾

또한 현재 ‘남반부’에 괴뢰 정권을 세워 놓고 남조선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는 조국 해방을 위한 승리의 전쟁(한국전쟁) 이후 북한에게 발목을 잡혀 궁지에 몰려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논리에 의해 북한은 ‘괴뢰’ 정부인 남조선이 아니라 ‘남반부’를 실제로 점령하고 있는 미국과 한반도 통일 문제를 협상해야 실효성이 있음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장차 ‘미제국주의자들’만 한반도를 나가면 통일은 필연코 온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다.⁵⁾

이런 인식에 기초하여 북한 주민들은 남한 사람들을 ‘미제국주의’의 불행한 희생자라고 보고 있다. 그 결과 ‘남조선 인민’들을 ‘미제’의 앞잡이로 폄하하지 않는다. 대신 ‘미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인 ‘괴뢰’ 정부 및 남한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남한을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로 보기 때문에, 비록 분단되었지만 한반도에는 오직 ‘하나의 조국’, ‘하나의 민족 국가’만이 존재함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통일을 ‘1민족 2국가’를 다시 ‘1민족 1국가’로 만드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분단된 1국가’를 ‘통일된 1국가’로 만드는 문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남한 정부에 대하여 북한과 남한 인민이 접촉하는 것은 남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 아니라 민족 구성원의 당연한 권리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 문제는 민족 자주의 원칙에서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조국통일 문제는 민족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세에 의존하거나

4) 이상우, 『북한정치입문 : 김정일 정권의 특성과 작동원리』(서울 : 나눔출판, 1997), 147쪽.

5) 허종호 외, 『한국전쟁을 시작한 미제국주의자들』(평양 : 외국어출판사, 1993) 참조.

외세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제’가 남조선에서 나가도록 해야 하며,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을 주장한다.⁶⁾

이와 같은 인식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김일성 사망 이후 발표된 김정일 명의의 논문·담화·노작을 통해 대미 인식의 기초를 읽을 수 있는데, 김정일은 김일성과 마찬가지로 남북 분단의 원인을 미국의 ‘남조선 강점’에서 찾고 있으며, 미국이 통일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⁷⁾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북한은 ‘미제국주의자’와 친미 세력인 ‘남조선 반동 세력’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민족해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미제국주의자’의 강점에서 ‘남반부’를 해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반부’에 ‘미제국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괴뢰 정권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남반부’에서 몰아내기만 한다면 민족해방을 이루고 인민민주혁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또 분단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 아닌 미국이기 때문에 한국전쟁의 당사자도 북한과 미국이고, 정전협정 당사자도 북한 인민군과 미군이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도 북한과 미국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미군 점령 아래 있는 미

6) 김세균, “통일정책”, 최명 편, 『북한 개론』(서울 : 을유문화사, 1990), 644~645쪽.

7)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11.1),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1995.6.19),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1995.10.2),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1997.6.19),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1997.8.4) 등을 통해 김정일의 통일 문제와 관련한 대미 인식을 읽을 수 있다.

해방 지역에 존재하는 여러 정당, 사회단체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⁸⁾ 이런 인식을 기조로 북한 당국은 대남 및 통일 정책과 대미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2) 대미 인식의 특성

국가 내에 형성되어 있는 ‘인식’(perception)이 대내외 정책의 목표와 실행수단을 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더 이상 부언할 필요가 없는 없을 정도로 기존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⁹⁾ 이렇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대내외 정세를 어떻게 읽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그 국가의 정책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인식’에 바탕을 두고 정책이 수립·집행된다고 하지만, 인식과 정책이 일대일 대응 관계를 이루기보다는 한 가지 인식에 기초하여 여러 개의 정책이 전개되는 것이 상례이며, 대내외 정책의 연관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¹⁰⁾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인식의 기조 아래 북한의 구체적인 대미 자세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즉, 북한의 대미 인식은 어떤 정책으

8) 이상우, 『북한정치입문 : 김정일 정권의 특성과 작동원리』, 개정증보판(서울 : 나남출판, 2000), 183쪽.

9) Robert Jervis, “Hypotheses on Misperception”, *World Politics*, Vol. 20, No. 4 (July 1968) and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ch. 1 & 2, esp., pp. 28 ~ 31.

10) William Zimmerman, “Issue Area and Foreign Policy Process : A Research Note in Search of a General Theo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7, No. 4(December 1973); Robert D. Putnam,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3(Summer 1988); James Rosenau, *International Politics and Foreign Policy*, 2nd Edition(New York : The Free Press, 1966).

로 구체화되고 있는가. 체제의 유지를 위해 외부 정보의 철저한 차단 방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하면, 앞에서 지적한 것과는 달리 대내외 정책의 연관성이 오히려 현저하게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체제 운용의 특성상 외교 정책이 국내 정치 상황이나 정책에 구애받지 않고 실행될 수 있는 여지를 그만큼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대외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국내 구성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이상, 대외 정책은 상대적으로 탄력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요인들을 감안할 때, 북한의 대미 인식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공식적인 대미 인식의 기초를 감안할 때, 쉽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적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미국에 대한 시각과 태도가 쉽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대내외 정책의 연계성이 낮은 폐쇄 체제 특성을 감안하면, 오히려 대미 정책의 전략과 전술을 가변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외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나 입장 변경을 대미 인식의 변화나 변경으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함께, 대외적 입장의 변화, 북한 인민들의 대미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각각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대미 인식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북한의 대미 인식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북한의 대미 인식을 매우 단순화시켜 온 측면이 적지 않다. 그리고 단편적인 사실과 상황에 기초하여 북한이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북한 내부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논리에 비증을 두는 경우 예외 없이 대미 인식의 불변론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대미 관계 개선에 비중을 두고 대미 외교 정책의 변화를 얘기하는 경우 대미 인식의 변화론으로 기을 수밖에 없었다.¹¹⁾

이런 문제 의식 아래 이 글에서는 우선 북한의 대미 인식의 기초를 형성해 온 대내적 측면을 분석하고자 한다. 적대적 대미 인식은 어떻게 형성·확산·강화되고 있는지, 그 내부 논리와 내용을 보고자 한다.

3. 적대적 대미 인식의 내재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의 적대적 대미 인식은 그 강도가 강하며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 단순한 대미 적대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내 정책, 통일 정책, 대남 정책, 외교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의 맥을 형성하면서 일관된 체계와 내용을 갖고 있다.

이런 인식의 체계와 내용은 북한 내부의 각종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입·확산되고 있으며, ‘교육’이란 단계적 사회화 과정을 통해 유지·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대미 인식은 북한 체제 내에 자리잡고 있는 ‘정치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인지적 정향’(認知的定向, cognitive orientation)이 정치 문화를 이루는 구성 요소 중의 하나인 경험에 바탕을 둔 신념 체계이기 때문이다.

소련의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정권을 출범시킨 북한 당국은 전체주의 특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북한 체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지배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우선 ‘남조선’과 ‘미제

11) 북한 내부 논리에 비중을 두고 북한의 대미 인식을 분석한 연구로 이미경, “북한의 역사서술 속의 대미인식의 특징과 함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5집 1호(2003), 265~299쪽을 들 수 있다.

국주의자'를 북한 인민의 계급의 적으로 설정하기 시작했다.¹²⁾ 또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사회란 전제 아래 남한 체제를 미군이 점령한 부르주아 착취 체제로 가정하고 남한 내의 프롤레타리아를 북한 인민과 뉘 수 없는 대상으로 간주하고 계급투쟁의 논리를 전개해 나갔다.

그 결과 '남조선 혁명'의 완수는 북한 체제의 존립에 필요한 필수 요건이며, 정당화 논리의 핵심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제'는 바로 남조선 혁명과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각인되었으며, '조국해방전쟁'을 치른 이후부터는 빠른 속도로 북한 체제의 '주적'이 되어 갔다.

대미 인식의 주조가 얼마나 강도 높게 그리고 정교하게 이루어져 왔는가는 사회화 과정의 교본인 북한 교과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정보의 교환이 활발하지 못하고 정보 접촉 창구가 다양하지 못한 북한 사회에서 지식이나 정보 공급원으로서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인민학교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¹³⁾

“인민군대 아저씨들이 미제 송냥이놈 땅크를 처음에 6대를 까부셨습니다. 다음에 2대 까부셨습니다. 두 번에 몇 대를 까부셨습니까?”¹⁴⁾

“지난 조국해방전쟁 때 조선인민군대 한 부대 아저씨들이 송냥이 미국놈을 87명 죽였습니다. 그 중 51명을 죽이고 나머지는 사로잡았습니다. 몇 명 사로잡았습니까?”¹⁵⁾

12) Michael Howard, “Lessons of the Cold War”, *Survival*, Vol. 36, No. 4 (Winter, 1994~1995), p. 163.

13) 2002년 9월 1일부터는 인민학교를 소학교로, 고등중학교를 중학교로 바꿔 부르고 있다.

14) 인민학교 1학년 『수학』의 한 부분. 이하 교과서의 인용 부분은 김동규, 『북한학총론』(서울 : 교육과학사, 1999), 262~263쪽에서 발췌하여 재인용.

“미제승냥이놈들이 짓밟고 있는 남조선의 한 도시에만도 학교에 못 가는 어린이가 2,350명이나 됩니다. 그 가운데서 □명은 구두땀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나머지 어린이들은 빌어먹고 있습니다 빌어먹는 어린이는 몇 명이나 됩니까? □=1,578명일 때 답을 구하시오.”¹⁶⁾

고등중학교 기하 교과서에서도 ‘미제’를 타도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한 비행기사냥군 조원 들은 500m의 높이에서 날고 있는 미제놈 비행기가 $47^{\circ}12'$ 으로 올라다 보일 때 비행기의 속도를 고려하여 올라다 보는 각이 $49^{\circ}30'$ 인 방향으로 쏘아 떨구었다. 사수는 비행기로부터 몇 메터 앞을 쫓겠는가.”¹⁷⁾

이외에도 인민학교 국어, 자연, 음악 과목, 고등중학교 생물, 물리 과목의 교과서에서도 ‘미제’를 대상으로 하는 문제나 서술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불쌍한 남조선 아이들을 꺾어 세균무기를 실험하는 미제 승냥이 놈들!”¹⁸⁾

“「떨어지는 미국놈 비행기」라는 제목의 그림 그리기”¹⁹⁾

“이 땅에 기여든 원수 미제를 우리는 용서치 않으리. 나 어린 가슴에

15) 인민학교 2학년 『수학』의 한 부분.

16) 인민학교 3학년 『수학』, “더하기와 덜기”의 한 부분.

17) 고등중학교 4학년 『기하』, “선분의 비”의 한 부분.

18) 인민학교 4학년 『국어』, 제33과 “빵 세 개 사과 다섯 알”의 한 부분.

19) 인민학교 1학년 『도화공작』의 한 부분.

심장이 끊어 복수의 싸움에 일떠나섰다. 간악한 원수 미제 때려부시고 사랑하는 고향 땅을 지켜가리라.²⁰⁾

“미제 괴뢰도당이 도사리고 있는 남조선 땅에서는 절대다수의 가난한 인민들은 심한 병에 걸려도 엄청난데 비싼 약값을 마련할 길이 없어 주사 한 대 못 맞고 숨져가는 가슴 아픈 일들이 보통 일로 되고 있다.”²¹⁾

한편, 외국어 교육을 강조하는 데서도 “미·일 제국주의자들과 싸울 때 영어와 일어를 한마디도 모르면 전쟁마당에서 적들을 붙잡아 놓고도 처리하기 곤란할 것이므로 청년들은 누구나 다 영어와 일본말로, 손들어! 정도의 간단한 군사용어는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식으로 학습의 동기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은 1976년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제정한 이후 취학 전 교육인 탁아소 및 유치원 교육 과정에서부터 남한과 미국에 대한 적개심 고취 교육에 비중을 두어 왔는데, 이는 탈북 동포를 대상으로 한 북한 교육실태 조사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즉,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만 1세 전후부터 노래, 춤, 전쟁놀이 등(70%)을 지도하고 집단 의식과 태도(14%)를 배양하며, 그 내용 중에는 김일성에 대한 감사와 당을 향한 충성심, 그리고 남한과 미국에 대한 적개심 고취에 50% 정도를 활용하여 학습지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²²⁾

교과 단원 주제를 보더라도 「국어」과의 경우 각급 학교 교과서는 적과 동지라는 이분법에 기초해 흑백론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혹은 ‘미

20) 인민학교 4학년 『음악』, “소년근위대원의 노래”의 한 부분.

21) 고등중학교 3학년 『생물』, 제4절 “곰팡이”의 한 부분.

22) 국토통일원, 『북한 이질화 실태조사』(서울: 국토통일원, 1978), 422쪽. 이러한 내용은 김현희의 수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김현희,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제2부(서울: 고려원, 1991), 27쪽.

제'와 일본 군국주의, 그리고 남조선 괴뢰도당이 독차지하고 있다.²³⁾

더욱이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력사」교육은 주로 계급투쟁 의식을 주입시키고 적대 감정을 심화시킨다는 목적 아래, 단편적인 사례를 예시하면서 가르치고 있을 뿐 한민족의 역사나 세계 역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은 다루지 않아 학생들의 사고를 더욱 정형화하고 있다. 단편적인 사례도 주로 '왜놈', '일제놈', '미제놈', '지주놈', '원썬놈'과 같은 적대적 계급이나 집단을 설명하기 위해 과장되거나 조작된 것이어서 북한 학생들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거의 제대로 모르고 있다.²⁴⁾

특히 적대 계급이나 반동 행위에 대해서는 언어를 문화인답게 구사하지 말라는 언어의 정치적 사용에 관한 지침으로 인하여,²⁵⁾ 「력사」 교과서 내용의 대부분이 과격하고 감정적인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예로서 '미국놈', '왜놈', '지주놈', '원썬', '까부수다', '꺼꾸러뜨리다', '쳐죽이다', '때려부시다', '찢어죽이다', '불벼락을 퍼붓다' 등의 표현을 들 수 있다.

특히 근대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침략과 관계된 인물은 예외 없이 '놈'자를 붙이고 있으며, 위에서 예로든 각급 학교 교과서에서와 같이 '기여들었다'는 표현으로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²⁶⁾

한편, 미국의 침탈을 다룬 사례는 주로 북한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에서 간행되는 『력사과학』을 통해 꾸준히 발표되어 왔는데, 미국은 개국 초기부터 한반도를 동아시아와 세계 침탈의 전초지로서 조직적으로

23) 김동규, 『북한학총론』, 264쪽.

24) 금성청년출판사 편, 『주체학습론』(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82); 같은 제목으로 출간된 서울 미래사에서 1989년에 간행된 영인본 70~72쪽 참조.

25) 1985년 평양의 교육도서출판사에서 발행한 인민학교 3학년용 『국어』 교과서, 제21과 「문화어로 말하기」, 67~68쪽 참조.

26) 김선규·김인식·최호성, 『남북한 국사교과서 분석』(서울: 교육과학사, 2000), 161쪽과 188쪽 참조.

침탈을 감행했다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²⁷⁾ 이 잡지가 북한 인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배포된 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북한 내부의 학자들이나 전문 연구자들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대미 인식의 깊이와 체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데, 이미 제목을 통해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주로 미국의 조선 침탈을 다루고 있고, 조선 침탈 과정에서의 미국과 일본의 공모를 강조하고 있으며,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부각시키고 있다.²⁸⁾

- 김희일, “미 제국주의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이다”(『역사과학』, 1960년 4호).
- 리동탁, “남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원조」의 침략적 본질”(『역사과학』, 1960년 5호).
- 강석희, “「조미수호통상조약」은 예속적이며 불평등적인 조약”(『역사과학』, 1982년 1호).
- 강석희, “강좌 : 조선침략을 위한 미·일 제국주의의 공모 야합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역사과학』, 1965년 2호).
- 리경애, “1960년대 미국 반동 통치배들과 그들의 전쟁정책에 대한 노동계급의 투쟁”(『역사과학』, 1992년 3호).
- 허종호, “미제는 조선전쟁의 도발자”(『역사과학』, 1980년 2호).
- 리금옥,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제의 핵전쟁준비와 핵공갈 책동”

27) 『역사과학』에 실린 글의 목차는 도진순, “북한의 역사학술지 『역사과학』의 총목차”, 『역사비평』, 봄호(1989), 356~378쪽 참조.

28) 이하 소개하는 글은 이미경의 논문에 소개된 글 가운데서 선별적으로 발췌하였음을 밝힌다. 대미 인식이 잘 나타난 북한의 역사서에 대한 분석은 이미경, “북한의 역사서술 속의 대미인식의 특징과 함의”, 273~278쪽 참조.

(『력사과학』, 1998년 4호).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교육을 통한 사회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북한 체제의 특성과 대미 인식의 형성·유지·강화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학 전 교육에서는 노래·유희·놀이를 통해 조직 생활의 집단주의 정신과 김일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 그리고 경애심을 키우는 교육 내용을 도입하고, 일본 제국주의와 ‘미제국주의’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는 교육 방법을 택하고 있다.

둘째, 초등교육에서는 김일성의 우상화와 혁명전통, 그리고 혁명정신 함양, 당과 조국에 대한 충성심, 반미·반일 감정에 따르는 투쟁의욕과 사회주의적 조국애 등을 고취하여 수령과 당의 ‘충성동意’를 키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셋째, 중등교육도 초등교육과 같은 맥락에서 혁명사상과 김일성의 신격화 및 계급투쟁 의욕 고취, 반일·반미 감정의 고조를 강조하고 있다.

넷째, “자주성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력사와 창조적 력사”를 가르친다는 목적에서 주로 민란과 투쟁사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다.

다섯째, 체제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재해석되고 변용된 『력사』는 교육을 통한 정치 사회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만 취사선택된 채 사상과 문화혁명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을 통한 정체성 이식·강화 노력은 대중매체를 통한 정치사회화 노력으로 이어지는데, 『로동신문』을 비롯한 제반 공식 간행물과 뉴스매체가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적대적 대미 인식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내용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로동신문』이 그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그 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의 「세계화」는 남을 예측시키기 위한 수법”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예나 지금이나 북한 내부에서 미국에 대한 인식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의 「일체화」 흐름이라는 것을 꾸며 낸 것은 전 세계를 서방식 「자유세계」로 만들며 모든 민족을 저들에게 예측시키고 동화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다. 경제의 「세계화」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이다. 이는 세계 경제의 「미국화」를 의미하는 말이다. 미국은 이미 오래 전에 인류의 몸에 달라붙은 거대한 진드기로 변하였다. 때문에 미국에 예측된 나라들이 더 큰 불행과 빈궁을 겪을수록 이 제국은 더욱 부유해지고 비대해질 것이며 인류의 마지막 기쁨까지 더욱더 탐욕스럽게 빨아먹을 것이다.”²⁹⁾

위 인용문에서 북한이 현재 제국주의를 어떻게 보고 있고 미국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미국에 대한 체제 내에서의 적대적 인식은 그 표현에 그치지 않고 북미간의 역학 관계에 대한 자체 해석 및 합리화 논리까지 생산해 내고 있는데, 재미 학자나 남조선 학자들이 저술한 형식으로 평양에서 발견하고 있는 최근 책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남한에 있는 김정일 연구 그룹의 일원이라고 밝힌 김철우가 쓴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2000)에는 “랭전 종식 이후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오만해질 대로 오만해진 미국을 마음 먹는 대로 죽치고 다루는 선군정치의 위력에 세계는 완전히 매혹되었음”을 부각시키면서, 그 결과 “오늘날 세인들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이 이북이 발사한 로동1호 미싸일 위력 앞에 북미 기본합의문에 도장을 찍었고 1만 2천km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가능케 하는 위성발사의 위력 앞에 「채

29) 『로동신문』, 2001년 11월 11일.

찍」으로서의 「5027작전」 계획 실행의 포기, 일부 경제제재 해제 조치와 같은 「당근」 방식을 택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³⁰⁾

“미국은 이북이 요구하는 대로 회담장에 나오지 않을 수 없었고 몇 차례에 걸치는 회담 끝에 이북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참관료」를 바치는 조건에서의 참관이라는 문서 채택에 도장을 눌렀다. 그리하여 1999년 5월 비싼 「참관료」를 지불하는 조건에서의 미 전문가 팀의 금창리 「지하시설」 참관이 이루어졌다. 당시 세계의 언론계는 미국의 여전한 굴욕 외교에 대해 떠들었고 이북이 3억 달러의 참관료를 불렀는데 미국은 금창리 지하 구조물에 5억 달러 상당의 쌀을 가득 채워 주었다는 것을 꼬집어 미국의 외교 능력을 조소하였다”는 서술은 북한이 대외 정세와 미국과의 역학 관계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조작화하여 전달하고 합리화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볼 수 있는 구절이다.³¹⁾

이런 내용은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 전체를 꿰뚫고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 미군 직승기를 쏘떨구고 미제국주의자들로부터 또다시 사죄를 받아 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커다란 승리입니다. …우리는 미제에 대하여 환상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에서 양보하거나 후퇴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나가야 합니다”라는 김정일의 ‘말씀’에 기초한 행동강령까지 제시하고 있다.³²⁾

이런 북한 중심적 시각과 논리는 재미동포 학자 장석이 쓴 것으로 되어 있는 『김정일 장군 조국통일론 연구』(2002)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제3절 유관 국가론을 다루는 곳에서 북한 중심적 시각과 대미 적대 인식이 상세하게 서술되고 있다.³³⁾

30) 김철우,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평양: 평양출판사, 2000)의 서문.

31) 위의 책, 251~252쪽.

32) 위의 책, 267쪽.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 떨치다” 중에서.

북미 관계 개선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이 왜 그렇게 북조선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느냐 하는 것으로부터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이 신경과민이라고 말할 정도로 북조선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한」반도 지배전략 내지 대「한」 지배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김정일 장군의 대미 군사전략과 선군정치의 위력에 대한 위구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다.³⁴⁾

즉, 국제사회에서의 북조선의 위상은 “단순히 그 어떤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중심권에 놓여 있는 것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음”을 역설하면서, “부쉬 행정부는 무분별할 정도로 「미국 제일주의」라는 오만에 사로잡혀 있음”을 비난하고 있다.³⁵⁾

이런 자기 중심적 해석과 논리에 따라 대미 관계를 논하면서, “힘의 입장 버리고 공약과 의무 성실히 리행하라”는 요구까지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 책에서는 “미국이 북조선에 번번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례를 들고 있다.³⁶⁾

- 1968년 1월 23일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에서는 미국이 사죄문을 썼다.
- 1969년 4월 15일 미군 정찰기 「EC-121」 격추 사건 때는 미국은 군사적 보복 조치를 단념했다.
-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 때는 공동경비구역을 분할시키는 것으로 끝났다.
- 1993~1994년 북조선 「핵무기개발의혹」은 1994년 10월 21일 핵

33) 장석, 『김정일 장군 조국통일론 연구』(평양: 평양출판사, 2002), 177~219쪽 참조.

34) 위의 책, 180~181쪽.

35) 위의 책, 181쪽과 185쪽.

36) 위의 책, 190쪽.

협정조인으로 끝났다.

- 1998년 8월 「금창리지하핵시설의혹」은 미국이 3억US\$의 관람료를 내고 금창리의 그곳을 참관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상의 서술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북한식으로 해석하고 단정하는 북한 중심의 시각을 재확인 할 수 있으며, 북한의 ‘인식 체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특히 외부와 단절된 상황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북한 내부의 대미 적대 의식과 북한의 우위를 주조하고 합리화해 가는 논리를 확연하게 읽을 수 있다.

4. 외교 정책에 나타난 대미 인식

“최근 미국은 우리를 압살하기 위한 심리 모략전과 봉쇄 책동을 전면적으로 벌이고 있다. 미국은 우리에게 마약 밀매, 화폐 위조, 종교 탄압, 망명자 발생, 인신 매매, 컴퓨터 해커 양성, 무기 밀매 등 별의별 것을 다 가져가 억지로 결부시키면서 우리 제도의 영상을 깎아내리기 위한 유치하고 비열한 모략 선전에 매여 달리고 있다. …우리는 정전협정의 파괴로, 선전포고로 간주되는 그 어떤 물리적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즉시 보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천명한다. 우리는 날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조선 고립 압살 전략에 대처한 정당방위 조치로서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³⁷⁾

마치 선전포고 분위기가 느껴질 정도로 미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표출된 위의 문건은 최근 발표(2003.6.18)된 북 외무성 대변인 성명이

37) 북 외무성 대변인 성명(주체 92.6.18).

다. 북한의 적대적 대미 인식이 외교 정책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외무성 성명 또한 북한 내부에 그대로 전달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일부러 강도를 높여 발표한 것인지, 성명 발표의 전후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성명에 담긴 뜻을 제대로 읽어 내기 어렵다.³⁸⁾

사실 이 성명은 2003년 4월 베이징 3자회담 이후 다자회담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상황에서 발표된 것으로서, 북한의 협상 입지를 강화하고 미국의 주도에 맡겨둘지 않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강력히 전달하는 메시지였다. 강한 어조로 발표하기는 했으나, 예전의 것에 비하면 ‘미제’ 대신 ‘미국’이란 표현을 쓰고 있고, 미국이 북한의 것이라고 한 것을 그대로 열거한 것 등, 이전의 것과 비교해 보면 매우 이해적인 성명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외교 정책 차원에서 북한의 대미 인식은 어떻게 표출되어 왔는가? 예전과는 달리 대미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인지? 대미 외교의 변화에 따라 북한 내부 정책은 어떤 대응 태세를 갖춰 가고 있는지? 현재 북한의 대미 인식은 어떤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여기서는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북한의 적대적 대미 인식은 대미 외교 관계에서도 그대로 반영된 결과, ‘조국해방전쟁’ 이후 1953년에 설치된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명목상의 접촉을 제외하고는 줄곧 반제·반미 노선을 고수해 왔다. 특히, 전쟁을 통해 군사적 대결을 치른 이후 북한은 미국을 대외 관계에서 최대의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한반도의 공산화를 가로막고 있는 주한

38) 북 외무성 대변인 성명이 내부의 신문·방송을 통해 북한 사회에 동시에 전달될 때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어떤 경우 대외용으로 또는 대내외용으로 발표되는가를 분석해 보면 북한의 입장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성명은 대내외용으로 발표된 내용이다.

미군 조기 철수에 주력해 왔다.

이런 반미 노선은 매년 발표된 김일성의 신년사를 통해 강화되고 강조되어 왔다.³⁹⁾ 매년 1월 1일 김일성의 육성으로 발표되던 신년사는 그 어떤 명령이나 규정보다도 위력이 있으며 우선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미국에 대한 적대감은 변함 없이 표출되었다.

그러나 신년사 내용을 분석해 보면 미국을 대상으로 한 표현에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1946년부터 1948년까지는 ‘미군’, ‘미군정’, ‘미제국주의자’라는 표현 이외에는 별다른 적대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가, 1949년부터 ‘놈들’, ‘떠벌리고 있다’는 과격한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전사와 전쟁 직후의 신년사에는 ‘미제강도놈들’, ‘조선인민의 철천의 원수 미제국주의자들’, ‘미제무력침공자들’, ‘미제고용병들’,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 리승만 괴뢰도당(도배, 역도)’ 등의 용어가 빈번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쟁을 치른 당사자에 대한 적대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61년은 특이하게 ‘미제’란 단어와 함께 보다 중립적인 ‘미국’이란 표현이 같이 쓰이는 예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다가, 1962년부터는 다시 ‘미제국주의자들’이란 용어가 대표적인 용어로 자리잡는다. 이런 경향은 1985년 신년사에서 “우리와 미국, 남조선 사이에 3자회담을 진행할 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습니다”라고 함으로써 ‘미국’이란 중립적인 표현이 다시금 신년사에 나타

39) 분단 이후 1946년부터 1994년까지 발표된 신년사는 실제로는 37회뿐이고, 그외에는 연설(4회), 축하문(2회) 등이 대신하였으며, 1957년과 1966년부터 1970년까지는 아예 발표조차 하지 않았다. 김일성 사망 이후 1995년부터는 지금까지 공동사설의 형태로 신년사를 대신하고 있다. 신년사 전문은 (사)북한연구소가 최신 인명사전 별책부록으로 간행한 『북한 신년사 분석』(서울: 북한연구소, 1996)을 참조.

날 때까지 상당 기간 지속된다.

그 이후부터는 ‘미국 군대’, ‘반미자주화’, ‘조·미 평화협정의 체결’, ‘유관국’이란 용어가 보충되면서, ‘미제’란 표현은 더 이상 신년사에서 는 찾아보기 힘들다. 더욱이 ‘미제국주의자’를 언급해야 하는 곳에서도 그냥 ‘제국주의자’란 포괄적인 표현으로 대신하는 양상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신년사에 나타난 용어 표현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미 외교가 어떤 변화의 경로를 걸었기에 미국을 지칭하는 신년사의 표현이 바뀌어 나타난 것인가? 이런 물음에 답하기 위해 우선 북한의 대미 외교 전개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⁴⁰⁾

대미 기본 인식에서 나타난 것처럼 북한은 미국을 ‘주적’으로 삼고 지속적인 반미 투쟁을 전개해 오면서도 외교 정책상의 대미 관계는 탄력적으로 운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조국해방전쟁 이후 고조되어 온 대미 적대 정책은 1970년대 초반 국제적인 긴장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변화의 양상을 나타낸다. 대미 접근으로의 선회는 미국과 중공과의 화해, 미국과 소련의 평화공존 체제, 일본과 중공과의 관계 개선 등의 국제정치적 상황 변화를 감안한 행동이었다. 1972년 닉슨의 중공 방문 이후 북한은 미국과 중공과의 화해를 국제적인 대세로 인식하면서 그동안 선결 조건으로 주장해 온 주한 미군 철수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동시에 미국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기 시작한다.

40) 북한의 대미 외교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서울 : 백산서당, 2002), 220~261쪽; 이찬행, 『김정일』(서울 : 백산서당, 2001), 939~953쪽;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서울 : 역사비평사, 2000), 353~361쪽; 김용호, 『현대북한외교론』(서울 : 오름, 1996), 153~424쪽; 허문영, “외교정책”, 김영수 외, 『김정일 시대의 북한』(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1997), 407~456쪽 참조.

이런 맥락에서 1972년에는 ‘조국해방전쟁’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언론인이나 학자들을 초청하여 대미 인민외교를 전개하고, 1974년에는 재미 한국계 학자들을 평양으로 초청하여 미국이라는 국가는 중요하지만 미국 국민과는 교류할 수 있다는 소위 인민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민간 차원의 인민외교는 1974년 평화협정 체결의 계기로 이어지면서 정부간 교섭 차원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는데, 같은 해 3월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 회의에서 채택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제의가 그것이다. 이 제의를 미국 의회로 보내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북한은 대미 외교의 중심이 정부 수준의 협상 영역으로 전환했음을 공식화하였다.

북한이 평화협정 체결을 미국에 제의한 것은 한반도 공산화 통일에 장애가 되고 있는 주한 미군의 철수를 관철시키기 위함이며, 한국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대상에서 공식적으로 제외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낮추고 한·미간의 긴장을 조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자주·친선·평화라는 외교적 이념과 대외 활동의 원칙을 앞세우고 국제 혁명역량에 힘쓰면서, 제3세계권과의 외교에 주력했다.⁴¹⁾

그러던 중 1980년대 말 이후부터 진행된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의 해체 및 붕괴는 북한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 주었다. 내부 자원의 고갈 속에서 맞이한 사회주의권 시장의 소멸은 북한의 체제 생존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초래했는데, 이로 인해 북한은 서방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비중을 두는 또 한번의 변화를 시도한다. 그러면서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대미 접근을 시도해 나가는데, ‘제국주의자’로 비난해 온 미국 지도층을 둘로 나누어 ‘진보적

41) 박태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1쪽 참조.

인사'와 '그렇지 않은 인사'로 구분하는 차별화된 분리 접근 방식을 시도한다.

이와 같이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북한은 대미 접근 자세에 변화를 보여 왔다. 그리고 대내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북한 체제의 생존과 안전 보장을 위해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이처럼 북한의 대미 외교 행태에 변화가 오면서 북미 관계는 관계 정상화를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진전되기도 했으나,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고 예기치 않은 9·11 테러 사건의 여파로 미국으로부터 '악의 축'으로 평가받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북미 관계는 또다시 적대감이 지배하는 양상으로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6자회담의 후속 회담을 논의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북미 관계는 상호 인식의 차이를 쉽게 극복하지를 못하고 있다.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강도적 논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에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⁴²⁾

이렇듯 탈냉전 시대의 북한의 대미 인식은 냉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변모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북한은 미국을 '주적'의 대상을 보고 있으며 대미 적개심은 외교 정책의 기저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문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시 행정부가 대북 강경 정책을 버리고 최소한 전임 클린턴 행정부 집권 마지막 시기의 수준에 도달할 정도만 되면 북미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⁴³⁾ 그리고

42) 『연합뉴스』, 2003년 10월 22일.

43)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여러 차례의 논평을 통해 “미국의 대화 의지를 판단하는 시급성은 지난 기간 조미 대화에서 힘들게 이룩한 기본 토대를 허

북한은 미국이 북미 대화 의제로 제시하고 있는 재래식 군비 감축 문제에 대해, 먼저 남한에 배치한 군사 장비 및 주한 미군을 철수한다면 재래식 무기를 감축할 수 있다는 조건부 감축 용의를 표시하고 있다. 즉, 북한이 상용 무력을 가지는 것은 ‘당당한 자주적 권리’라고 전제하고, “미국이 남조선에 배치한 침략 무력을 철수한다면 구태여 경제 건설에 지장을 받으면서 상용 무기 강화에 힘을 넣지 않을 것이며, 조선 반도의 평화를 위해 상용 무기를 축감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대미 ‘불가침협정’의 체결을 줄곧 요구하고 있다.⁴⁴⁾ 그런데 북한 당국의 말처럼 정말로 미국과의 ‘불가침협정’을 원하는 것인지, 또 불가침협정을 맺은 후 핵개발 카드를 과연 포기할 수 있을지는 기존의 북한 태도를 감안하면 아직 확실하기 어렵다.

오히려 불가침협정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현재 북한은 내부 분위기를 고려해 불가침협정을 통한 체제 단결이란 대내적 효과를 노리고 있는 듯하다. 체제의 붕괴를 점치는 비관주의가 만연하고 있을 1990년대 초반, 핵 위기 타결의 협조를 구하는 클린턴의 친서가 김정일 체제 구축에 얼마나 결정적이었는가를 김정일은 잘 알고 있고, 푸에블로호 사건(1968)에 대한 미국 정부 사과문을 김일성 유일 체제의 강화제로 오랫동안 씹먹은 기억 또한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반면, 불가침협정의 무용성을 북한 지도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핵 카드를 잃고 나서 북한이 어떤 꼴을 당할지도 이미

물지 않는다는 입장을 원칙으로 표명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이것을 떠나 대화 재개를 논하고 그 누구에게 공이 넘어갔다는 식의 논조를 되풀이하는 것은 국제사회를 기만하기 위한 빈말 치레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44) 북한이 불가침협정의 고수 입장을 다소 수정하여, ‘다자틀 내 서면 안전 보장’ 방안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2차 6자회담의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연합뉴스』, 2003년 10월 25일).

원히 내다보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북은 이른바 핵과 미사일을 내세운 ‘대미 비대칭 억지 전략’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⁴⁵⁾ 그러면서 이라크 사태를 교훈 삼아 핵 개발 카드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핵을 보유하는 쪽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 북핵 사태의 당사자로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선 핵을 보유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최근의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를 비롯한 일련의 핵보유 발언 등은 이런 북한의 전략적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

한편, 북한은 대미 접근 자세의 변화 속에서도 체제 내부 단속은 전보다 더 강화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북한 주민의 동향에 무척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탈북자 망명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미국이 예전에 비해 이른바 ‘북한 민주화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은 체제 단속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다. 또한 남쪽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이 악화될 것을 무척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남쪽과 교류는 시작하되, “주도권은 우리가 쥘다”는 식의 남북 교류 및 지원에 대한 정당화 내지는 합리화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예컨대, 북남최고위급회담(6·15 정상회담) 이후 통일을 위해 남쪽에서 모두 다 갖다 바친다고 했으니, 남쪽으로부터의 지원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아울러, 핵 문제만큼은 창구를 단일화해 미국과 담판을 벌일 테니 남쪽 정부가 쓸데없이 끼여들지 말라는 메시지도 벌써 수차 강조하고 있다. 이런 태도를 감안할 때, 북한은 대미 관계와 대남 관계를 동시에 연관시켜 고려하는 동시에 불변의 국제관과 대외 인식체계 아래 일관

45) 핵과 미사일 사례를 중심으로 한 북한 대미 전략은 최용환, “북한의 대미 비대칭 억지·강제 전략”(서강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을 참조.

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컨대, ‘민족 공조’를 부쩍 내세우는 것 또한 미국과의 담판을 위한 정지 작업 중의 하나라고 본다. 즉, ‘우리 민족끼리’를 앞세워 남쪽의 통일 감정과 자주 지향 정서를 자극하게 되면 한미 공조의 틀을 밑바닥부터 흔들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제부터 남북이 같은 편이고 ‘미제국주의자’가 적이라는 구도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같은 민족에겐 절대로 핵을 사용할 수 없다는 구호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

이런 종합적인 생존 전략에 따라서 북한은 현재 경제 문제의 해결보다 김정일의 정치 기반 안정과 주민들의 충성 유도, 사회주의 체제 유지 및 고수라는 것을 당면과제로 삼고 이의 해결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상 진지가 무너지면 아무리 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서도 사회주의를 지켜낼 수 없다”며⁴⁶⁾ 주민들에 대한 사상사업을 최우선시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는 의미에서 북한의 대미 접근 양상에 기초한 ‘대미 인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미국을 체제 생존의 위협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⁴⁷⁾ 북한이 지속적으로 불가침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중단하라는 데서 북한의 인식을 읽을 수 있다. 부시 행정부의 출범과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요구는 이런 북한의 인식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46) 김정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1995.6.19).

47) 북한이 미국을 얼마나 위협적으로 의식하고 있는가는 북한의 상황을 남한의 상황으로 유추하여 북한의 위기를 설명한 Andrew Mack, “The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Asian Survey*, Vol. XXXIII, No. 4(April 1993), p. 344; 김용호, 『현대북한의교론』(서울 : 오름, 1996), 402~403쪽에서 재인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이런 북한의 인식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는데, 부시 행정부가 군사 위협 감소 및 긴장 완화, 인권 상황 개선 등의 체제 변화를 요구함에 따라 미국을 보다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체제 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핵과 미사일 문제와 같은 안보 현안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미국은 인권 및 개혁·개방 등과 같은 북한 체제의 본질적 변화를 제기,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넷째, 따라서 북한은 자신의 체제 생존 및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미국의 대북 강경 자세를 고려하여 경제적 이익과 안보 현안을 연계시키려는 목적보다는 미국으로부터의 압박 상쇄를 최단기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

여섯째, 이를 위해 ‘시간 끌기 전술’을 통한 ‘버티기 전략’을 구사하면서, 남한과의 관계를 매개로 한 상황 타개 방안 모색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본다. 즉, 남한 사회의 대북 인식의 변화를 통해 ‘남한 혁명 역량’을 증대시킴으로써 기존의 한미 관계를 동요시키는 전략도 함께 실행하고 있다고 본다.

일곱째, 이를 위해 외부 정보가 체제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며, 체제 내부의 대미 인식의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⁴⁸⁾

48) 여기서 1972년 5월 『뉴욕 타임즈』의 솔즈베리 기자와 『워싱턴 포스트』의 셸리 해리슨 기자를 방북하도록 하여 나눈 다음과 같은 내용의 김일성 회견이 아직도 유용함을 확인해 준다. “긴장된 정세하에서는 전쟁 준비를 계속 강화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전쟁 준비를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인민들이 미국을 증오하도록 교양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김창순 편, 『북한의 교론』(서울: 북한연구소, 1978), 275쪽.

5. 북한 인민의 대미 인식

북한 당국이 체제 유지 및 강화의 차원에서 북한 표현대로 ‘내려먹이고’ 있는 대미 인식의 논리와 내용들을 북한 인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물론 위에서 주조하여 학습시키고 있는 미국 관련 내용들을 특별한 의심이나 거부감 없이 적극적으로 내재화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기존 연구 시각이다.

또한 북한 체제의 특성상 다른 입장이나 이견을 갖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존 인식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정보가 유입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인민 영역에서의 대미 인식은 비교적 동질적이며 뚜렷한 변화양상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이다. 즉, 위에서 의도하고 있는 대미 인식의 논리와 내용을 별다른 문제없이 수용하고 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북한 인민들의 ‘미제와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기본적인 대미 인식 이외에 기타 미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갖고 있을지 궁금하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상 북한 인민들의 대미 인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분석할 방도는 없다. 이 주제를 다룬 기존 연구 또한 찾기 어렵다.

흔히들 북한에 가서 연구만 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알아내고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북한 인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조사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현재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북한 당국의 엄격한 제한 속에서 실행되는 현지 조사 연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은 뻔한 일이며, 남한 사람에 의해 실시되는 현지 조사를 북한 인민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일 리 없기 때문이다.

예전에 비해 의미 있는 사회 변화를 겪은 중국의 베이징 대학생들조차 자신들의 정치 의식을 묻는 설문 조사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데서 북한 인민들을 대상으로 한 현지 조사 연구가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⁴⁹⁾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을 탈출하여 우리 사회로 들어온 탈북 동포들을 대상으로 북한 인민들의 대미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11월 말 현재 금년도 입국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섬으로써 이제 우리 사회에는 북한에서 살다 온 4,000명이 넘는 탈북 동포가 살고 있다. 이들은 북한 인민들의 대미 인식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연구 대상인 것이다.⁵⁰⁾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정착 지원 시설인 ‘하나원’ 개원 이후 기별로 강의를 1~2회씩 담당해 오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탈북 동포들의 대미 인식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다.⁵¹⁾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설문 조사나 심층적인 면접을 실시한 것은 아니나, 강의 시간이나 기타 대화 시간에 북한에 살고 있을 때 미국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종종 물어 보았다.

대미 인식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묻게 된 동기는 어느 탈북 동포가 보여 준 일기장 때문이었다.⁵²⁾

49) 베이징대학교 학생들의 의식 조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박광희, “4대 직할시 도시주민과 일반 지역 주민의 정치문화적 시민성 비교연구”, 『국제지역연구』, 가을호(2002) 참조.

50) 탈북 동포 입국·거주 현황(2003년 11월 말 현재)

입국년도	'89년 이전	'90~'99년	'00~'01년	'02년	'03년	계
입국인원	607	488	895	1,140	1,091	4,221
거주인원	374	477	891	1,139	1,090	3,971
사망·이민	233	11	4	1	1	250

51) 1999년 6월 17(20명) 입소 이후 2003년 11월 초까지 총 3,000여 명(남자 약 1,400명, 여자 약 1,600명)이 2~3개월의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

52) 탈북 동포의 일기장은 1996년 입국 직후부터 신분 통제가 해제되기까지 약 8개월 간의 자신의 심정을 써 놓은 것이다. 일기장의 주요 내용은 김영수,

“양키 문화가 판을 치고 민족의 녀도 문화도 다 말살되어버린 썩어빠진 남조선 사회가 아니다. 그동안 속아온 것에 분이 솟구친다.”

“미국놈과 ‘사업’을 하려고 처음 마주 앉았는데, 조선 인민의 칠천지원썩라는 생각 때문에 적대감을 참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하는데 더 만나보고 내 인식과 견해를 정리해야겠다.”⁵³⁾

“또 미국놈과 ‘사업’을 하다. 그들이 저지른 ‘신천만행’을 생각하니 적개심과 복수심이 끓는 것을 참기 어렵다. 미국놈에 대한 복수심이 솟는다.”

“경복궁, 역사박물관을 구경하면서 옛날 총독부 시절이 떠올라 일본놈에 대한 복수심이 끓는다. 일본인 관광객에게 사과를 받고 이곳을 구경시켜 주어야 한다. 왜 이곳을 일제침략성을 폭로하는 고발장소로, 복수모임 결의장으로 활용하지 않는가?”

“세종호텔에서 일본 기자와 만나 ‘사업’을 하는데 일본놈이라는 생각이 앞서 제대로 대답도 못한 것 같다. 텔레비전에서 력사극을 보면서 일본놈에 대한 적개심이 끓는다 앞으로 통일이 되면 고구려 땅도 되찾아야 할 텐데.”

이와 같은 대미·대일 적개심은 일기장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특정 탈북 동포의 개인적 성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탈북동 포들이 미국과 일본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한편, 탈북 동포들의 대미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국가안전기획부의

『탈북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서울 : 통일연수원, 1996), 44~57쪽 참조.

53) 여기서의 ‘사업’은 면담을 의미한다.

조사 자료가 큰 도움을 주었는데, 여기에는 1980년까지 탈북 입국한 (그 당시에는 ‘귀순’이라고 표현) 100명과 1980년 이후 귀순한 40명을 전부 망라한 총 140명의 심층 면접 결과가 담겨 있다.⁵⁴⁾

이런 경험과 기존 조사 자료를 토대로 도출한 북한 인민들의 기본 인식과 대미 인식은 다음과 같다.⁵⁵⁾

첫째, 남북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은 남한의 불성실과 일방적 중단 때문이고 남한의 관료들과 미국이 통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남북 대화란 하나의 평화 공세이므로 북한 인민은 환상을 갖지 말고 제국주의자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무력으로 싸우고, 또 싸우면 승리한다는 것을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로 교양받아 왔음을 증언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당면 위협 요인에 대해서는 물자의 빈곤이라고 답한 사람이 제일 많고(37.5%), 다음으로는 북침 위협(32.5%), 정치 체제 모순(20.0%), 고된 조직 생활(5.0%), 부정부패(2.5%)의 순으로 지적하고 있다.

셋째, 외국 소식의 인지 경로에 대해서는 여행자(35.0%), 주민 소문(27.5%), 정부 발표(25.0%), 외국 신문과 책(5.0%), 외국 친척(5.0%), 무응답(2.5%)의 순으로 답을 했다.

넷째, 북한 주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는 미국이고 그 다음이 일본, 남한(정권) 순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당국이

54) 국가안전기획부, 『북한주민의식조사연구 : 월남 귀순자 진술을 중심으로』 (서울 : 국가안전기획부, 1990).

55) 여기서는 탈북 동포를 대상으로 인식의 계량화를 시도하지 않았다. 능력도 부족하고 계량화할 정도의 연구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인식의 특이성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였다. 따라서 이 결과는 탈북 동포 전체의 의견으로 볼 수 없으며, 북한 인민의 의식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밝혀 두고자 한다.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에 최대의 저해 요인으로 미국을 들고 있고 남조선이 미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다고 학습시킴으로써 북한 인민들은 당연히 미국을 제일 싫어하는 나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은 민족적 감정에서 일본을 싫어하고 있으며, 남조선의 정권을 싫어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비율은 미국 40.0%, 일본 30.0%, 남한 15.0%, 무응답 15.0%로 나타나고 있다.

시기별로 볼 때 6·25 전쟁을 치르고 난 뒤부터 1980년대로 올수록 미국을 증오하는 경향이 높으며, 당·정권기관 요원이나 학생·기술자 일수록 미국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정권기관의 지도자급이 미국을 더 많이 증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대로 일본은 북한 인민 전체가 민족적 차원에서 증오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미래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이 적대 국가는 미국, 일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섯째, 통일 추진 방식으로 전쟁에 의한 통일 방식(64%)을 제일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하던 경향이 점차 교류에 의한 방법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탈북한 사람들도 평화적인 통일의 가능성에 더 많이 동조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여섯째,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통일에 방해가 되니 즉각 철수해야 한다는 90%, 단계적인 철수가 7.5%로서, 북한 인민들의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한 입장은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한국에 대해 잘 몰랐다는 의견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과 동시에 한국을 보는 북한 인민의 평가도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미제국주의’의 가난한 식민지라는 의견이 전체의 77.5%를 차지했고, 자본주의 발전도상국이라는 의견은 17.5%, 물자가 많은 살기 좋은 곳은 5.0%에 불과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이 남조선임을 남한에 와서 처음으로 알았다는 놀라운 대답도 적

지 않게 나왔다.

여덟째, 북한에 있었을 당시 느낀 남한의 약점으로는 미군 주둔으로 인해 미국의 예속 국가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 것(37.5%)이 가장 높고, 시위·무질서 등으로 인한 사회의 혼란(20.0%), 성 문제 등 사회의 퇴폐(10.0%) 등을 꼽았다.

6. 결론 : 대미 인식의 변화 가능성

북한 사회에서의 ‘미국’은 ‘미제국주의’로 존재해 왔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침략자, 약탈자이며 세계의 모든 진보적 인민들의 첫째가는 공동의 원수”로 각인되어 왔다. 특히, ‘조국해방전쟁’을 거치면서 군사적 대결을 한 이후부터는 미국을 대외 관계에서 최대의 적대국으로 간주해 왔다.

또한 주한 미군이 모든 전쟁 위기의 근원이라고 간주하고, “미군에 의해 강점되어 있는 남조선을 해방시켜야 함”을 전쟁 준비의 명분과 체제 유지의 정당성으로 활용해 왔다. 따라서 북한의 대미 정책은 한반도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주한 미군의 조기 철수에 초점을 두고 전개되어 왔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범세계적인 반미 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반미 투쟁’은 북한의 대외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호가 되어 왔다.

북한의 반미 인식은 중요한 체제 규정 문건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조선로동당 규약, 헌법, 형법 등의 표현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에 “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라는 표현으로 반미 의식이 정치규범화 되고 있고,⁵⁶⁾ 1998년 9월에 개정된 헌법 제2조에도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라

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9년 수정된 형법 제52조에는 심지어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그와 야합하여…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것 같은 민족반역행위를 한 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다.⁵⁷⁾

한편, 반미 선전은 대내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전쟁 위기 의식의 고취와 전쟁 준비 태세의 촉구에도 효과적으로 이용해 왔다. 그리고 대미 적대감을 고취시킬 때는 반드시 김일성 - 김정일 우상화를 병행시켜 왔다. 즉, 적대적 대미 인식의 고취를 국내 정치와 연관시켜 체제 유지의 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던 것이다. 그 결과 반미 선전과 김일성 - 김정일 유일체제 강화 작업과는 함수 관계에 놓여 있으며, 미국에 대한 증오감 고취 없이는 체제 충성심을 유발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한 연관 관계를 형성해 왔다.

이런 맥락을 감안할 때, ‘북한의 대미 인식’은 좀처럼 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변화를 시키기도 어렵다고 본다. 즉, 증오의 사회 심리가 체제 유지와 직결되고 통치의 정통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북한의 대미 인식은 쉽게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물론 데탕트라는 국제 정세 변화와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로 인해 반미 인식에 기초한 외교 정책에 변화가 초래되기도 했지만, 이는 분명한 인식의 전환이 아니라, 북한 당국이 표현한 대로 ‘전술적 전환’인 것이다.⁵⁸⁾ 이런 새로운 전술의 채택으로 대미 외교 정책도 공격과 유화의

56) 이는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수정된 당규약 전문의 내용 중 일부인데, 1970년 제5차 당대회 당시에는 “당은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인 미제를 몰아내고…”라고까지 되어 있다.

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1990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호로 채택되었으며, 1995년, 1999년의 수정을 거쳐 현재의 내용을 갖추고 있음.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서울 : 국가정보원, 2003), 121쪽.

이중성을 띠게 된 것이며, 현재는 ‘핵카드 외교’를 중심으로 군사주의와 경제적 실용주의의 동시추구라는 이중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⁵⁹⁾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미 접근 방식에서는 종전과 다른 모습이 나타날 정도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미 인식의 기초에 따른 기본 전략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체제는 외부 정보를 효율적으로 차단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 정책에서의 전술적 변화가 그대로 체제 내부에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체제 내부의 논리와 외부의 행동에 괴리가 있더라도 체제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더러, 설사 있다 하더라도 김철우의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2000)나 장석의 『김정일 장군 조국통일론 연구』와 같은 책에서 보다시피 자신의 행동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논리를 개발하여 주입시키게 되면 별다른 문제가 생길 여지는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

한편, 탈북 동포들의 의식에 나타난 대미 인식을 통해 북한 인민들에게 각인된 대미 인식의 깊이가 생각보다 깊다는 점에서, 북한의 사회화는 현재까지 비교적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북한의 대미 인식이 내부로부터 바뀔 가능성 또한 크지 않다고 본다. 요컨대,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폐쇄 체제를 현재와 같이 운영해 나가는 한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 체제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약점이란 점을 동시

58) 1971년 11월의 당 제5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국제정세에서 제기된 당면한 제 문제의 전술적 전환’을 결정하고 대미 정책에 있어서 휴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미국과 체결하기 위해 실리추구의 유연 정책을 수행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김창순 편, 『북한외교론』, 279쪽 참조.

59)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353쪽 참조.

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폐쇄 체제의 차단막이 풀리기 시작하면 북한 체제는 견잡을 수 없이 변화의 경로를 걸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이 계획하고 있는 이른바 ‘북한 민주화 프로그램’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을 방문했을 때마다 따라 붙는 ‘안내원’이 사라지는 바로 그 시점이 북한의 ‘변화’를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며 그때부터 북한의 모든 인식 체계의 동요를 예상할 수 있다고 본다. 그만큼 북한의 대미 인식은 생각보다 불변의 특성을 갖고 있고 제법 단단한 유기적 인식 체계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인식’이 쉽게 변하게 되면 ‘인식 연구’의 의미 자체를 찾을 수 없게 된다. 한번 형성된 인식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가정이 있어야 정치 문화란 개념도 성립하고 인식 연구도 가능하게 된다. 물론 ‘북한의 대미 인식’도 인식의 불변성을 전제로 한다면 새로운 것을 얘기할 것이 별로 없게 되고, 지금과 같이 매우 간단한 결론밖에는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게 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북한의 대미 인식이 얼마나 변했는가를 주장하는데 역점을 두지 않고, 분단 이후 58년이 지나는 동안 대미 인식이 어떻게 형성·유지·강화되어 왔는가에 초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특히 ‘대미 인식’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역점을 두고, 대개 단순화 시켜 언급하던 것을 좀 더 세분화하여 공식적인 기초, 대외적인 입장의 변화, 인민들의 의식 구조 등으로 나누어 접근해 보았다.

이 논문이 다루지 못한 한계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대미 인식을 좀더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변화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대미 정책과 역사적으로 내재화된 대미 인식 간에 어떤 긴장 관계가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혀 내야 하고, 북한 당국이 학습시키고 있는 대미 인식을 북한 인민들이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제시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북한 대미 인식의 변화 여부와 그 경로를 제대로 예상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북한이 미국을 보는 인식뿐만 아니라, 북한이 미국을 잘못 본 것(misperception)은 무엇인지를 동시에 밝혀 내야만 북한의 대미 인식의 체계와 특성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다고 본다. 고정된 대미 인식으로 인해 상황을 잘못 판단한 사례는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안다면 ‘북한의 대미 인식’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고등중학교 3학년 『생물』(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5).
고등중학교 4학년 『기하』(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7).
인민학교 1학년 『도화공작』(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7).
인민학교 1학년 『수학』(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7).
인민학교 2학년 『수학』(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7).
인민학교 3학년 『국어』(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85).
인민학교 3학년 『수학』(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7).
인민학교 4학년 『국어』(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7).
인민학교 4학년 『음악』(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97).
금성청년출판사 편, 『주체학습론』(평양: 금성청년출판사, 1982)(서울: 미래사, 1989).
김영근, “력사교수를 개선하는 기본고리는 무엇인가”, 『인민교육』, 제4호 (1966.4).
김정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1995.6.19).
——,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1995.6.19).
——,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11.1).

——,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1997. 8.4).

——,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1995.10.2).

——,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1997.6.19).

김철우,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평양: 평양출판사, 2000).

리동구, 『비약의 나라』(장편소설)(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2).

박대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장석, 『김정일장군 조국통일론 연구』(평양: 평양출판사, 2002).

허중호 외, 『한국전쟁을 시작한 미제국주의자들』(평양: 외국어출판사, 1993).

『로동신문』, 2001년 11월 1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주체)92.6.18).

〈2차 자료〉

구갑우, “북한인식의 정치적 회로: 국제관계학의 오리엔탈리즘 비판”, 경남대 북한대학원 · 경실련 통일협회 · 한국NGO학회 공동주최 학술회의 논문발표집(2002.11).

국가안전기획부, 『북한주민의식조사연구: 월남 귀순자 진술을 중심으로』(서울: 국가안전기획부, 1990).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서울: 국가정보원, 2003).

국토통일원, 『북한 이질화 실태조사』(서울: 국토통일원, 1978).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서울: 백산서당, 2002).

김근식, “북한의 체제보전과 대외정책 변화: 진영외교에서 전방위 외교로”, 『국제정치논총』, 제 42집 4호(2002).

김동규, 『북한학총론』(서울: 교육과학사, 1999).

김동규 · 김형찬 편, 『북한교육사』(조선교육사 영인본)(서울: 교육과학사, 2000).

김선규 · 김인식 · 최호성, 『남북한 국사교과서 분석』(서울: 교육과학사, 2000).

김세균, “통일정책”, 최명 편, 『북한 개론』(서울: 을유문화사, 1990).

김영수, “북한정권의 국제적 위상과 전망: 『핵카드 외교』를 중심으로”, 이우진 · 김성주 공편, 『현대한국정치론』(서울: 사회비평사, 1996).

——, 『탈북귀순자 남한사회 적응실태 조사』(서울: 통일연수원, 1996).

김용호, 『현대북한외교론』(서울: 오름, 1996).

김용호 · 손혁상, “비대칭적 국가간 협상이론과 북한의 핵협상: 북한의 협상행태 분석”, 『협상연구』, 제1권 제1호(1995).

김창순 편, 『북한외교론』(서울: 북한연구소, 1978).

- 김현희,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제2부(서울: 고려원, 1991).
- 도진순, “북한의 역사학술지 『역사과학』의 총목차”, 『역사비평』, 봄호(1989).
- 박광희, “4대 직할시 도시주민과 일반지역 주민의 정치문화적 시민성 비교연구”, 『국제지역연구』, 가을호(2002).
- 박종철, 『미국과 남북한: 갈등과 협력의 삼각관계』(서울: 오름, 2002).
- 북한연구소, 『북한 신년사 분석』(서울: 북한연구소, 1996).
- 서보혁, “탈냉전기 북한의 대미 정체성 정치: 작동방식과 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1호(2003).
- 이미경, “북한의 역사서술 속의 대미인식의 특징과 함의”,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5집 1호(2003).
- 이상민, “남북한-미국 관계의 역사적 고찰”, 『한국과 국제정치』, 제16권 제1호(2000).
- 이상우, 『북한정치입문: 김정일 정권의 특성과 작동원리』(서울: 나남출판, 1997).
- , 『북한정치입문: 김정일 정권의 특성과 작동원리』, 개정증보판(서울: 나남출판, 2000).
- 이성호, “북한의 중등교육”, 고대평화연구소 편, 『북한교육의 조명』(서울: 법문사, 1990).
- 이종석,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2000).
- 이찬행, 『김정일』(서울: 백산서당, 2001).
- 이혜정, “패권의 굴레: 북미갈등과 한반도의 평화”, 『현대북한연구』, 제6권 1호(2003).
- 전현준·장윤수,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인식변화”, 『서울평양학회보』, 제1집 2호(2002).
- 척 다운스 저, 송승중 역, 『북한의 협상전략』(서울: 한울, 1999).
- 최용환, “북한의 대미 비대칭 억지·강제 전략”(서강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 허문영, “외교정책”, 김영수 외, 『김정일 시대의 북한』(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7).
- , 『북한외교의 특징과 변화 가능성』(서울: 통일연구원, 2001).
- 『연합뉴스』, 2003년 10월 22일.
- 『연합뉴스』, 2003년 10월 25일.
- Jervis, Robert, “Hypotheses on Misperception”, *World Politics*, Vol. 20, No. 4 (July 1968).
- ,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 Howard, Michael, “Lessons of the Cold War”, *Survival*, Vol. 36, No. 4(Winter

1994 ~95).

Mack, Andrew, "The Nuclear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Asian Survey*, Vol. XXXIII, No. 4(April 1993).

Putnam, Robert D.,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2, No. 3(Summer 1988).

Rosenau, James, *International Politics and Foreign Policy*, 2nd Edition(New York : The Free Press, 1966).

Zimmerman, William, "Issue Area and Foreign Policy Process : A Research Note in Search of a General Theo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7, No. 4(December 1973).

North Korea's Perception toward the United States

Young Soo Kim(Sogang Univ.)

Since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has kept up an unending diatribe against the American 'Imperialism' in Korea. North Korea has continuously demanded the immediate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Korea, based on the premise that U.S. troops are the greatest single obstacle to reunification.

For North Korea, the task of national unification is not 'reintegration of a divided nation' in a literal sense. Instead it is an issue of 'completion of national liberation'. The North Koreans argue that in 1945 only the northern half of the Korean Peninsula was liberated from Japanese colonial rule, because in the South the American imperialists replaced the Japanese as colonial ruler and the United States still keeps troops there.

In the eyes of North Korea,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nothing more than a puppet regime run by the 'Yankee Imperialists lackies' who serve only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Thus according to the North Korean argument, the real issue is to expel the American colonial rulers from South Korea and thereby achieve the

liberation of the South.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swer related questions such as: What are the causes of North Korean hostilities toward the United States? What are the features of North Korea's hostile perceptions of the United States?

In conclusion, there has been no change in North Korean hostilities toward the United States despite efforts to improv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post-cold war period. North Korea's hostile perceptions of the United States are not likely to change as long as the North's existing system is maintained.

Key Words : hostile perception of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n strategy to survive, DPRK foreign policy, misperception, defectors